

북·중·러 연합의 형성과 전망: 신냉전의 불가피한 결과인가? 일시적인 밀착인가?*

안정은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미·러 갈등, 북핵문제 등 복합위기 속에서 북·중·러의 밀착 현상을 조정게임과 조정문제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들의 밀착은 '신냉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연합과의 대립을 기반으로 포컬포인트를 상징하고 연합을 만들며, 전략을 조정한다. 하지만 신냉전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외부적 요인에 따른 포컬포인트로 인해 전략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또한, 제도로서 안정적인 대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고, 이익에 따라 결합하는 특정 연합이 형성되면 방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연합 내 휘방자가 발생하고, 이에 연루될 것을 다른 국가들이 두려워하며 연합이 지속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북·중·러의 연합의 지속 가능성이 작아지고, 일시적인 밀착 현상 속에서 비협조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신냉전, 북·중·러, 조정게임, 전략적 불확실성, 포컬포인트, 휘방자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전략경쟁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처럼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핵위협,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 이 논문은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통일연구원 연구원(E-mail: jeahn@kinu.or.kr)

이슈가 발생하면서, 많은 연구자와 주요 매체에서는 탈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도래했으며,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철민 2022; 김태효 2021; 신형철 2023; 장시영·남궁영 2023; 『KBS 뉴스』 2023/06/2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2022년 10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서를 일괄 공개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며, 러시아는 중대 위협,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 및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은 세계가 ‘변곡점(inflexion point)’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로 평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앞으로의 10년 동안 중국과 경쟁할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The White House 2022).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Mao 2022), 2022년 11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며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조준형 2022). 바이든 대통령도 “신냉전 시대일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밝혔다(테사 워 2022).

두 강대국이 신냉전의 흐름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중, 2023년 1월 1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노동신문』 2023/01/01).”

북한은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인 《화성-17형》 발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Missile Defense Project 2022).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최소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

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하도록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거나,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교역이 재개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2022년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연합군 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5월 2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에서 미국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두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자, 폐쇄되었던 북한과 중국의 육상, 해상 교역이 재개되었고 북한과 러시아의 두만강-하산(Khasan) 화물열차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이후, 2023년 1월 29일 북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미국이야말로 로씨야(러시아)의 전략적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미국을 비난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두둔했다. 이어서 30일, UNSC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어서 7월 27일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로 명명하고 있는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와 중국 축하사절단이 ICBM을 비롯한 전술 전략미사일 열병식 행렬을 참관하면서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했다.

〈표 1〉 북한, 중국, 러시아 동향(2018~2023.9.)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2018. 3.	북한, 중국	북·중 정상회담 (베이징)	북·중관계 정상화 및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복원
2018. 10.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	북 회선회, 중 쿵쉬안유, 러 이고르 모르골로프 참석 UNSC 대북제재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19. 4.	북한, 러시아	북·러 정상회담 (블라디보스토크)	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첫 정상회담
2019. 6.	중국, 러시아	중·러 정상회담 (모스크바)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관계’ 천명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2019. 12.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미국, 영국, 프랑스 반대 무산
2021. 8.	중국, 러시아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판	중 왕이 외교부장, 정세 긴장 격화 초래 행위 금지 촉구 중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러 안드레이 테니소프 주중·러시아 대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등 정세 긴장 고조 행위 지양 촉구
2021. 10.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재제출	코로나19 등 북한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 완화 필요 강조 미 국무부(11/4) 반대의견 표명
2021. 12.	중국, 러시아	한반도 문제 인식 공유	중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 러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 전화면담, 한반도 문제 시각 공유
	중국, 러시아	중·러 화상 정상회담	한층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 구축 및 한반도 문제 협력
2022.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지지 및 UN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강조
2022. 3.	북한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공식 파기 중국, 러시아 북한 두둔
2022. 4.	중국	글로벌 안보구상 발표	공동안보, 주권존중, 영토보전, 내정간섭 금지, 안보불가분 원칙, 일방주의 반대 러시아에 대한 우회지지 표현
2022. 5.	중국, 러시아	UNSC 대북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미 주도 대북제재 S/2022/431 결의안 거부권 행사
2022. 9.	중국, 러시아	‘보스토크-2022’ 다국적 군사훈련	러시아 다국적 군사훈련에 중국 훈련 참여
	중국, 러시아	제7차 동방경제포럼	중 리잔수, “중국은 세계 다극화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적극 추진자”
	북한, 러시아	철도화물 운송 재개 검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단했던 육로 개방
	북한, 중국, 러시아	北 정권 75주년 축전 발송	시진핑, 푸틴 대통령 축전 발송 보도
	중국, 러시아	중·러 정상회담	‘하나의 중국’ 원칙 제시 다극적 세계질서 형성을 공동으로 지지
	북한, 중국	철도화물 운송 재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단했던 신의주-단동 사이 화물열차 운송 재개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2022. 10.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발다이클롭 기조연설	다극적 세계질서를 추구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 북한 문제는 미국에게 책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 관계 파괴 시사
2022. 11.	중국, 러시아	중국 외교부장- 주중 러시아대사 회담	다원적 세계 추진, 단일패권 부정
	북한, 중국, 러시아	北《화성-17형》재발사에 따른 UNSC 내 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 러시아, 미국 책임론 제시
2023. 1.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발표	미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에 대해 강한 비판 및 러시아 지지
2023. 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5차회의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
	중국, 러시아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및 북한에 대한 지지표명 ‘쌍궤병진’ 접근방식 강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원인은 미국책임
2023. 4.	북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 발표	우크라이나 비판, 러시아 지지
	북한, 중국, 러시아	한·미 정상회담 결과 ‘워싱턴 선언’ 관련	북·중·러 보복 시사, 한반도 역내 및 국제질서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라 비판
2023. 5.	중국, 러시아	중·러 외교장관회담	‘신냉전’ 및 패권 반대, 다자체제 협력 강화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한·미·일 레이더 시스템 공조에 대해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
	중국, 러시아	G7 관련 비평	중, 주중 일본대사 초치 러, 반러시아·반중국 정서 부추긴다고 비판
2023. 6.	중국, 러시아	제6차 연합공중전략순찰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해주 정부,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북·중·러 3개 생산품을 한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북한, 러시아	나진-하산 공동전략 프로젝트 재건 논의	장관급 소통 재개, 나진-하산 공동전략 프로젝트 재건 강조

일자	주요 행위국가	제목	내용
2023. 7.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열병식	중·러 대표단 참여 김정은에게 시진핑, 푸틴 친서 전달
2023. 9.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중국 당·정부 대표단 파견 러시아 군대협주단 파견
	북한, 러시아	북·러 정상회담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개최 러시아 전투기 생산공장, 전략무기 시찰

*출처: 각종 정부 부처 브리핑자료 및 온라인 기사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1>과 같이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러가 한·미·일과 대척점을 만들며 밀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대척점은 냉전시대의 유사성과 함께 새로운 냉전, 즉 ‘신냉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러의 밀착이 신냉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반동적 대미, 대서방정책의 모습으로서 일시적이고 단순 밀착하는 형태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검토

북·중·러 밀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흐름은 이들의 밀착을 ‘삼각관계’로 정의한 후, 양자관계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내부 역동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로버트 저비스(Jervis 1998)의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를 통하여 양자관계가 삼각관계로 발전하면서 폐쇄된 삼각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순환적 메커니즘이 구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로웰 디트머(Dittmer 1981)가 제시한 ‘삼자동거’, ‘낭만적 삼각관계’, ‘안정적 결혼’ 등 삼각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북·중·러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재현(2022)은 북한의 핵실험 강도에 따라 북한 주도의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어 인지적 안정과 삼각경영관계를 형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견해 차이로 양자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흐름은 외부위협 변수로 인하여 북·중·러의 협력이 형성되었다는 데 주목한다. 대부분 미국을 외부위협으로 인식하여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균형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김재관 2013; 신범식 2018). 백준기(2013)는 북·중·러 삼각관계는 ‘위협균형’과 ‘묶어두기·결박’이라는 행위유형의 비대칭적인 부등변 삼각형으로 비유되며 미국을 외부 위협으로 인식해 전략적 제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흐름으로는 삼각관계에서 중추(pivot) 행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북·중·러의 밀착의 중추 행위자로 북한을 주목했다(노현중 2023; 박원곤 2023; 박정민 2013; 차두현 2022; 허문영 외 2012). 임을출(2022)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구도가 있었으나,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고립을 탈피하고자 전략을 넘어서 신냉전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북·중·러 연합을 ‘삼각관계’로 정의하고, 그 과정 및 특징, 그리고 내재적 또는 외재적 영향에 대해 주로 분석한다. 즉, 국가 단위로 설정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삼각관계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세 국가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추 행위자인 북한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나 명확한 이론적 프레임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중·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보다는 밀착상황의 현주소와 그 실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북·중·러의 공조를 ‘삼각관계’ 등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조정하는 행위자의 집단을 의미하는 ‘연합(coalition)’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을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조정게임은 게임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이 전체 집단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략을 조정할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북·중·러의 밀착은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인 대미정책이라는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여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중·러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인 밀착행위만을 이어가고 정확한 전략 조정을 공약하지 않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중·러 밀착의 전개 사향을 살펴보고, 조정게임을 통해 안정적인 연합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밀착관계로 전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중·러 연합과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

국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서 다른 국가들과 합당한 수단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국익을 실현한다(Shepsle 2008). 합당한 수단에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약속(commitment) 등 다양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모든 행위자가 조화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협력할 수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각자의 행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개별 행위자의 목표와 그룹의 목표가 일치함에도 전략 선택으로 인한 결과(pay off)가 불평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 때문에 조정문제가 발생한다(Heinemann et al. 2009; Van Huyck et al. 1991).

이에, 북·중·러가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또는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으로서 공통의 목표를 통해 ‘대연합’을 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은 공통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즉, 북·중·러는 “우리가 모두 공통의 조정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조정에서 협상은 명확한 의사소통 없이 비언어적 신호 혹은 기존의 선례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집단일 경우에는 협상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중재자(mediator)가 등장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재자가 등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북·중·러와 같이 3인 이상의 다수의 참여자가 다차원의 전략을 제시할 경우, 안정적인 대안이 선택되지 못하고 혼돈의 상황(chaos theorem)이 발생한다(Mckelvey 1976).

결과적으로, 혼돈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마스 C. 셸링(Schelling 1960)은 ‘포컬포인트(focal point 또는 셸링 점(Schelling point))’를 제시했다. 포컬포인트는 “나와 상대방이 동일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때, 이 예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대와 자신의 의도를 합치시킬 수 있다.”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포컬포인트(salient focal point)가 설정되어도 각각의 행위자에게 불균등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정이 실패한다(Crawford et al. 2008). 또한, 조정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지 확신할 수 없고, 전략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Bueno de Mesquita 2016). 즉,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포컬포인트에 대한 전략적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대방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즉, 북·중·러 삼국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대연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해진다. 제도는 특정한 공

동인식을 조정하게 되어 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Greif 2006). 즉, 삼국이 각각 다수의 행동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순응주의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란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순응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제도에 대해 순응주의가 형성된다고 해도 최소 두 나라 간의 존재할 수 있는 연합조약(혹은 동맹)이 양자관계만으로 해결되는 포컬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삼국 가운데 두 국가가 연합해서 나머지 한 국가를 따돌리거나, 견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삼각관계 내의 중추 행위자와 달리 ‘훼방자(spoiler)’의 역할도 중요하다. 훼방자는 조정게임 내에서 자신이 최대이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행위자를 이기게도, 또는 패배하게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훼방자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자신들의 평판(reputation) 등을 고려하여 훼방자가 포함된 조정에서 안정적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북·중·러가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구도의 대척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포컬포인트에 따라 연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세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조정게임에 참여하지만, 포컬포인트에 대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전략이 달라지면서 서로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며, 조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대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강한 제도 등이 부재하므로, 이익이 합치되는 특정 연합이 구성되거나 훼방자가 발생하여 조정의 문제를 더욱 극대화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북·중·러 연합이 신냉전의 흐름 속 불가피한 결과로서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북·중·러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인 밀착행위만을 이어가고 자신들의 전략을 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비협조체제임을 전망하고자 한다.

Ⅲ. 북·중·러 연합의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

분석 및 전망

북·중·러의 연합에게서 발생하는 조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컬포인트를

어떻게 각 국가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연합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여부를 확인하여 연합 내의 조정 권력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합에서 중추 행위자에 버금가는 행위자의 존재가 있는지, 만약 행위자가 있다면 어떠한 조정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해야 한다.

1. 포컬포인트로서의 ‘신냉전’에 대한 북·중·러의 관점 차이

북·중·러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 포컬포인트로는 ‘신냉전’의 흐름 속 반동적인 대미·대서방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냉전은 국제질서를 읽어낼 수 있는 한 시대의 흐름이자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냉전은, 냉전이나 탈냉전과 달리 정의나, 성격, 특성, 환경 등 정교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그저 30년 전 이미 끝나버린 냉전을 대신해서 미·중, 미(서방)·러 대결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김기수 2022; 류동원 2022; 반길주 2021).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어 신냉전의 한 축을 이끄는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 중국특색의 대외외교 △ 신형국제관계건설 △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제시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주도적인 대외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이 시작되자,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에서 근거한다며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며 신냉전을 지양하려는 태도를 내비쳤다(이동률 2023). 또한, 중국은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으며 “세계 다극화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적극적 추진자”라고 밝혔다(중국망 2022; Mao 2022). 더 나아가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칭하거나 확장을 피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세계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생각을 밝혔다(이보람 2023).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남겨 국제적 지지를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신냉전을 형성하여 국제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신냉전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적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훈성 2023).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공세적 국익 방어외교를 강화하고, 반미·반패권 연대를 구축해왔다. 유럽-유라시아-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전략의 복합성 속에서 중국과의 연대와 제휴가 확대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냉전의 패배자로서 오래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재소환하고, 양대 진영화와 위계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냉전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장세호 2023). 또한, 2023년 3월 31일 새로 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 따르면, 미국 및 서방과의 대결 자세를 견지하면서 비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현승수 2023).

반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창출할 구도으로써 신냉전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냉전시기 진영외교와 다변외교를 통해 외교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공산권의 붕괴 및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북핵문제에 따른 ‘불량국가’ 낙인 등 우군 없이 UN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받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로 북한은 현재의 흐름을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 북한은 2008년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제목으로 발표한 글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에게 도전받는 다극화 추세에 직면했다고 진단했고, 끊임없이 반미정책과 미국 중심의 일극화를 비판했다(박원곤 2023).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신냉전의 진영화 된 세계질서에서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의 공조는 신냉전의 조장 행위이나, 북·중·러의 공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정당한’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당성을 보완하고 전략적 기회의 공간을 확대했다(이훈성 2023; 장세호 2023).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서방의 정책을 냉전적 사고에 근간한다고 비판하고 자신들을 다극화의 중추 행위자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신냉전의 흐름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상정하고, 북·중·러 연합의 강화를 외치며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연합의 기본 틀이 되는 포컬포인트인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각국의 불안정적인 조정 전략 선택, 즉, 전략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북·중·러의 연합이 내재적 포컬포인트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 즉 미국과 서방이라는 신냉전을 조성하는 경쟁 연합에 의해 포컬포인트가 형성되었다. 테탕트 이전 냉전시기에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소련과 중국, 북한이 내재적 결속을 강화했다면, 현재의 북·중·러는 외재적인 변수에

의해 결속하며 포괄포인트가 형성되었다. 만약 미국과 서방의 전략이 변화하여, 각 국가에게 상이한 이익이 발생할 때 연합이 존속되기란 어렵다.

이러한 점을 미국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의 도전 분야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이 영향을 받고, 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The White House 2022).

또한, 미국과 EU의 대중국 프레임이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변화하고,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미국이 중국과 공동의 도전에 대한 이익을 조정하고자 대중정책 노선을 변경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수정할 때 북·중·러 연합의 포괄포인트인 신냉전의 관점이 변화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전략적 변화가 추동될 것이며, 이는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연합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 세 국가가 내부적으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진다.

2. 북·중·러 연합의 조정 권력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정학적 전략의 경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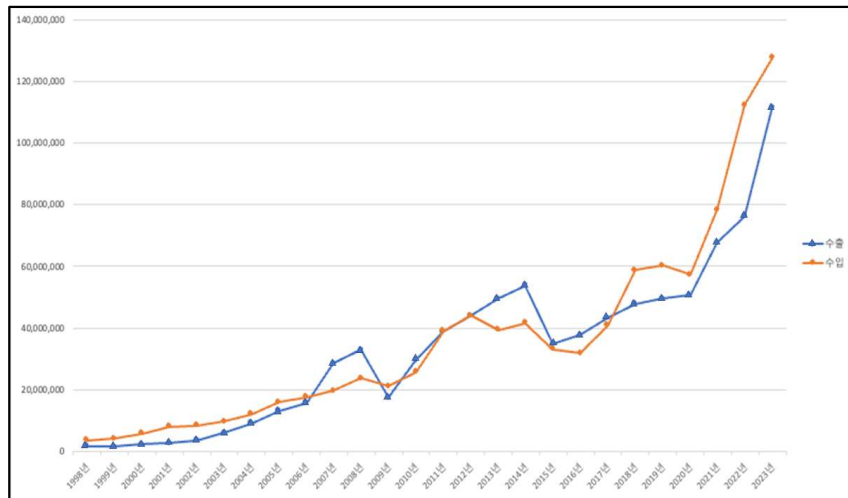
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동성명, 동맹 조약 등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가 간의 연합에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특히,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조정에 따른 동일한 권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리적 제도를 창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각 국가는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익에 합치되는 이해관계를 선별하려 한다. 즉, 연합 내부의 권력 차이 및 배분에 따라서 특정 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Caplow 1956).

객관적 지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국력 2, 3위에 위치하고 2023년 군사력 지수(Global Firepower Index: GPI)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 3위에 위치할 정도로 강대국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자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에 밀착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전체 교역량이 1천 8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3년 1/4분기 총무역액 기준 중국의 일곱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러

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량은 유럽에서 줄어든 물량을 상쇄하고 남는 수준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경쟁을 경계해오며, 군사기술분야의 협력을 추구할 뿐,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중국은 생존에 필수적인 우군이 되었다.

〈그림 1〉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수입액(1998~2023년)

(단위: 천 달러)



*출처: (K-stat 2023)

북한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국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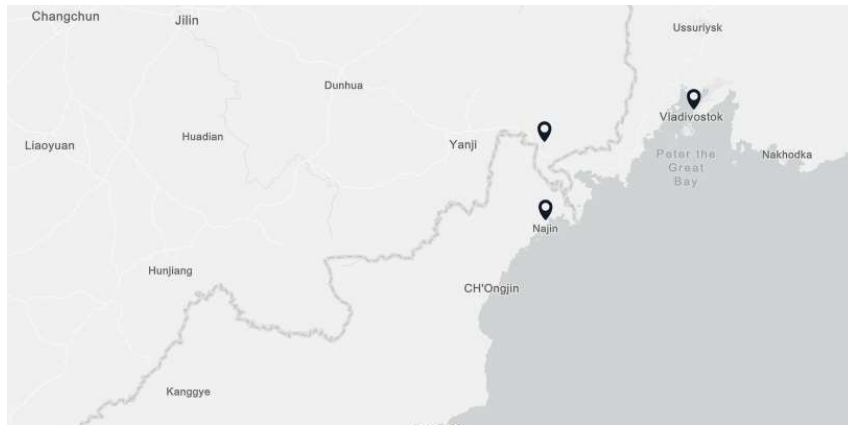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합의 내부 조정 권력 배분의 역학 구도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북·중·러는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으므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동북 3성 개발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연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동진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해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물류 인프라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동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은영 2017).

북한의 경우, 라진·선봉경제특구를 통해 중국의 동진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는 지린성이 202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중국 내륙 화물 중계항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²⁾.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동북지역의 물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무역협력을 통해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서부 중심의 물류망을 운영하던 러시아가 극동지역으로 러시아의 물류망을 재편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동진을 우려했으나(안승섭 2019), 오히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대비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북·중·러 접경지역



*출처: (ESRI 2011)

그러나 과거에 중국은 북한과 합의를 통해 훈춘-라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10년부터는 「나선경제무역지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의 공동개발·관리」에 합의해서 2011년부터 나진항을 통해 동북지역의 석탄, 곡물, 목재 등을 중국의

- 1) 중국이 국내 물류 이동 시, 자국 내 다른 항구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외국 항구를 ‘내륙 중계항’이라고 부른다.
- 2)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간 교역 규모는 예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상당량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이뤄졌다(조영빈 2023). 또한, 지린성은 1천km 떨어진 다롄 등 랴오닝성에 있는 항구 대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식량과 석탄 등을 중국 남방으로 수송하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최수호 2023).

남부지역으로 운송했다. 또한, 2012년 8월 「나선경제무역지구의 북·중 공동개발 계획과 산업구 계획」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함께 제재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나진항 사용이 잠정 중단되었다(이한나 2023; 조용성 2023).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극동의 최대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에게 북한의 나진항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된 만큼,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달갑지만은 않게 된다. 물론 세 국가의 접경지역 개발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협력의 이익이 중첩되거나, 위험-수익의 상충관계가 커질 때는 경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에게 있어서 중·러 관계가 갈등보다 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러의 경쟁을 활용해서 보상을 얻어내던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손해가 더 클 때 북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북·중 간 접경지역의 투자 및 경험 프로젝트들이 북한의 대외개방 관리, 정책 일관성, 개방 속도조절 등의 리스크로 중단되었다는 부정적인 경험들과(정은이 외 2022), 북·러 경제협력에 있어 대리체무상환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어 접경지역에서 중·러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의 방기(abandonment)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쟁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익을 얻지 못한 국가가 방기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러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의 대외정책에 따라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내 조정 권력 차이가 미미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사례로 중앙아시아에서의 대외정책경쟁이 있다. 중앙아시아는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동쪽으로는 중국과 인접해있다. 2000년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다(이주연 2021).

러시아는 유라시아 문명권을 만들어 러시아의 독자적 위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은 구 소련 소속으로, 소련의 붕괴로 의도치 않게 독립하면서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거나 국민 상당수가 러시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해외송금을 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CSF 2023).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안보유지 및 지역통합,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다자협력기구 등을 활용했다³⁾.

2023년 3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라는 용어 대신, ‘근외지역(Near Abroad)’을 사용하면서, 보다 러시아 중심적인 시각에서 중앙아시아를 관리하겠다고 천명했다(현승수 2023). 이처럼 러시아의 지배력 강화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불안감과 유라시아 주요 강대국들의 러시아 재부상 억제전략과 맞붙을 수밖에 없으며, 우호관계인 중국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고삐를 바투 잡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서진의 경유지로 삼고자 하며, 에너지 협력의 희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023년 5월 18~19일 양일에 걸쳐 중국은 산시성 시안에서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모인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수망상조, 공동발전, 보편적 안보 및 영원한 우정의 공동 미래를 가진 중국-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携手建设守望相助、共同发展、普遍安全、世代友好的中国—中亚命运共同体)’ 주제의 기조연설과 함께,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시안 선언’에 서명하고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과 목록’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31년 전 수교를 맺은 이후 교역액이 10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의 직접투자 또한 2023년 3월 말 기준 150억 달러가 넘는 정도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趙安琪 2023).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는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편,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과 단순히 에너지협력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는 러시아의 계획에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언론에서도 상반된 평가로 입증된다. Eurasianet(2023) 등 유력 매체에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상회담이 기존 논의 이상의 새로운 협력이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이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다자협력 틀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개별 관계를 추구하면 러시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박지원 2019).

결과적으로 중-러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외환경과 지정학적 전략의 변화 속에서 접경지역인 중앙아시아로 하여금 두 국가 사이에서 만들어진 연합이 약화할 수 있다.

이렇듯 연합 내부에 존재하는 권력 배분의 문제에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얻

3)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 등을 설립했다(이홍섭 2018).

어내지 못하거나, 방기 된다면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유인이 낮아지고 오히려 연합을 방해하는 내부파괴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파괴적 행위로 인하여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른 행위자 또한 이 연합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3. 북·중·러 연합 내 궤방자에 대한 연루 문제

연합에서 궤방자는 내부파괴적 행위를 이어가는 걸림돌이 된다. 궤방자는 이익을 얻거나 승리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 다른 행위자까지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북·중·러 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이 각각 궤방자가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궤방에 대한 연루(entrapment) 문제는 연합의 존속에 위협성을 높인다. 연루는 앞서 언급했던 방기와 함께 연합 내부의 권력 배분과도 연계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부터 시작해서 2022년 전면전으로 확장되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서방의 동진정책이라고 비판 하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 보호 등의 명분을 세워 전쟁을 개시했다. 국제사회는 즉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전쟁 책임을 강력하게 물으며 고강도의 대러 경제제재를 시행했다. 교역부터 첨단, 금융 분야까지 제재가 확장되었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교역 제재가 취해졌다(조영관 2022).

중국은 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5가지 입장’을 발표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 이와 함께, 중국은 UNSC의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이므로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힘쓰며 패권과 권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UN 헌장의 원칙도 수호해야 하는 딜레마를 더욱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관영매체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미국의 패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조형진·송승석 2022),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한 제11차 UN 총회 긴급특별회의 소집과 관련한 결의안 2623호(S/RES/2623)에 대해서 중국이 기권했다(United Nation 2022a). 이후 제11차 긴급특별회의에 따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 투표에서 중국은 기권하거나 반대했다.

〈표 2〉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11차 UN총회 긴급특별회의의 관련 투표 결과

연번	날짜	내용	최종 투표 결과	북·중·러 투표 결과		
				북한	중국	러시아
1	2022. 3. 2.	유엔 총회 결의안 ES-11/1 -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	반대	기권	반대
2	2022. 3. 24.	유엔 총회 결의안 ES-11/2 -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인도주의적 결과”	찬성 140, 반대 5, 기권 38	반대	기권	반대
3	2022. 4. 7.	유엔 총회 결의안 ES-11/3 -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 연방의 회원권 정지”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	반대	반대	반대
4	2022. 10. 12.	유엔 총회 결의안 ES-11/4 -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유엔 헌장 원칙 수호”	찬성 143, 반대 5, 기권 35	반대	기권	반대
5	2022. 11. 14.	유엔 총회 결의안 ES-11/5 -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 대한 구제 및 배상 증진”	찬성 94, 반대 14, 기권 73	반대	반대	반대
6	2023. 2. 23.	유엔 총회 결의안 ES-11/6 -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유엔 헌장의 원칙”	찬성 141, 반대 7, 기권 32	반대	기권	반대

*출처: (United Nations 2022b; 2022c; 2022d; 2022e; 2022g; 2023)

경爽(耿爽) 주UN 중국대사는 분쟁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UN이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United Nation 2022f). 이처럼 중국은 외교적 수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가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전쟁 중단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공표하고 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을 전달했다(한중구 2022). 또한, 9월에 중-우크라이나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은 절대 방관하지 않고, 불에 기름을 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규 2022). 12월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의 초심을 고수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2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정치적 해결 관련 입장 12가지를

발표하며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 4월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유선 협의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라시아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중재외교를 나설 것을 시사했다(김지수 2023). 더 나아가 6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Asian Security Council: ASC)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러시아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행보로 인해 얻는 대외적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서방의 대중국 불신을 발생시킬 수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커질수록, 대러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확대됨에 따라 ‘탈중국(De-Sinicization)’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거대시장으로서 EU와의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충돌되는 리스크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우크라이나와의 농업협력 관계가 불투명해지면, 부정적 선례로 남아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서 부정적 평가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간 중국이 강조했던 ‘책임있는 대국’, ‘인류운명 공동체’ 등의 대외정책에도 모순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매우 큰 손실을 얻게 된다.

연루는 동맹을 맺었을 때, 동맹 파트너의 안보 이익에 따라 자신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거나, 군사원조에 의한 안보딜레마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 아니므로, 연루의 가능성이 작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대외 이미지를 위하여 전통적인 동맹을 거부해왔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다. ‘전면적’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하며, ‘전략’은 총체적인 부분 또는 핵심 이익에서의 일치 및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왕리 2015). 이처럼 견고한 동맹보다 동반자 관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리적 외교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시에 적도 만들지 않으려는 유연한 태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현재 행보는 중국의 외교 이념과도 맞지 않으며, 동맹이 아니지만 모호한 개념의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도 연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및 전후 재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밀착을

4)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면서 일대일로 계획에 큰 악영향이 발생했으며, 마리우폴 항구에 대한 투자 등 대우크라이나 경제협력 전략 등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김석환 2022).

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동맹에 준하는 협력으로 인해 연루가 발생하여 자신들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복합적인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러시아와 협력을 거부하게 된다. 반대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중국에게 편승하고자 하는 전략이 실패할 때 연합을 깨는 궤방자가 될 수 있다.

북·중·러 연합의 또 다른 궤방자는 북한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북한은 주로 중추 행위자로 주목받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북한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린다. 하지만 연합 내 가장 약소한 조정 권력을 보유한 북한은 중추 행위자가 아닌 궤방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UNSC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는 다르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이다. 북한은 북·중·러 연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를 요청하며 편승하거나,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에 방기될 위험성에 놓여있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상대방이 침략당할 때 자동 개입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차례 진정한 의미에서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왔으며,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쌍궤병행(双轨并行)⁵⁾을 제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지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견고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변화할 경우, 북한의 처지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미 탈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는 UNSC 내에서 대북제재에 찬성하고,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제재 이행국이였다. 또한, 북한에게 있어 2018~2019년의 경험은 북·중·러 연합의 틈을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가 강 대 강의 교착국면으로 빠졌으나, 한때 미국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 일 대 일 협상을 진행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미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해 이익을 배분하는 다자회담의 형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도 학습했다. 북한에게 있어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은 대외전략노선을 변경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호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편승하는 상태에서 7차 핵실험 등 강력한 공세전략을 통해 존재감을 내세우려 할지도 모른다.

5)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이 것처럼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거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이다. 북핵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중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을 경계하는 것이라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 나빠지고 고립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의 대립이 보다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할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매우 작은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와 규범 속에서 중국의 성장과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북한과의 협력이 있어서는 철저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정적인 국제적 이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에는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북·중·러 연합의 중추 행위자는 연합 내에서 가장 강한 조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시절 안정적인 진영 질서를 제공했던 소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북한의 존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군사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해 중국은 양국 간의 문제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중국은 이들과 연합을 구성하기에는 연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23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는 경쟁적 관계에 있으나,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다소 소강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국력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만큼 연합 내 조정 권력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핵을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고 대리제재로 인해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편승하거나, 이익을 제대로 담보 받지 못할 경우, 연합의 휘방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휘방자인 북한과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중국이라는 중추 행위자를 움직여 안정적인 연합으로 나아갈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장 약소국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편승하려는 동시에 방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휘방자가 되어 다른 두 국가를 연루하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밀착하고 있는 북·중·러 연합의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시작되었다. 작금의 세태를 신냉전이라고 정의할 경우, 북·중·러의 연합은 당연한 추세로 보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연합에서 전략적 이익과 조정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본 연구는 북·중·러 밀착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큰 프레임을 설정한 후, 이를 전제로 북·중·러의 관계를 이해하다 보니 밀착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한 관계 유형으로 관찰하려는 흐름에서 나왔다. 이에 보다 더 이론적인 함의를 찾고자 다자의 조정게임을 통해 이들의 밀착이 어떻게 연합으로 구성되고, 그 연합이 존속될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북·중·러는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반동적 대미정책 및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공통의 포컬포인트를 통해 연합을 만들고 전략을 조정한다. 그러나 북·중·러가 각기 ‘신냉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냉전시기와 달리 이념 진영이 아닌 반동적 대미(서방)정책에서 포컬포인트가 발생하므로, 이들의 전략이 달라지며 서로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또한, 동맹 등 제도로서 이들이 대연합을 구성할 전제조건이 미비하고, 국익에 따라 이익이 합치되는 특정 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에 의해 나머지 한 국가가 방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놓인다. 또는, 방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꾀할 수 있는 행위자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꾀방에 연루될 것을 나머지 국가들이 두려워해 연합이 지속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연합이 신냉전의 필수적인 결과물이 아닌, 일시적인 이익 연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배척하는 삼각 연합의 형성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전혀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연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긴장과 대결 구도가 점철되면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적인 이익 추구의 경쟁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외관계가 고려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면서 제로섬의 게임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중·러 연합에 의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러 연합이 일시적인 밀착으로 끝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라 정의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이슈 현저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현안이므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정부 부처 및 관영매체의 발언에 의존하여 사안을 추정하고 전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중·러 연합을 조정게임의 틀로 분석하면서 다양한 규칙과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에,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후속연구에서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기수. 2022. “구냉전과 신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2022(18), 1-24.
- 김석환.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전략에 파장 - .”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06), 115-119.
- 김재관. 2013. “21세기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한 고찰.” 『동북아연구』 28(2), 6-42.
- 김지수. 2023. “시진핑, 젤렌스키와 통화...“대화·협상이 유일 출구”.” 『연합뉴스TV』 (4월 27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01400641> (2023/06/20 검색).
- 김철민.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현황.” 『EU연구』 63, 207-246.
- 김태규. 2022. “中왕이, 우크라 외무장관과 회담...“평화 건설적 역할하겠다”.” 『뉴시스』 (9월 2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37358?sid=104> (2023/06/20 검색).
- 김태효. 2021.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신아세아』 28(2), 113-126.
- 노현중. 2023. “냉전, 신냉전 그리고 북한.” 『SNU AC 다양성+Asia』 21, 1-5.
- 류동원. 2022.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중국지역연구』 9(2), 333-362.
- 박원근. 2023.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논평』 2023-02, 1-5.
- 박정민. 2013. “러·북관계의 발전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평화학연구』 14(5), 163~188.
- 박지원. 2019. “중양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2(3), 1-6.
- 반길주. 2021.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1(1), 1-53.
- 백준기. 2013. “북·러관계의 전략적 합의와 북·중·러 삼각관계와의 전략적 상호작용—동맹, 균형, 그리고 위협인식.” 『아시아문화연구』 32, 181-221.
- 신범식. 2018.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이론과 현실.” 신범

- 식 편.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서울: 도서출판 이조, 11-48.
- 신형철. 2023. “유엔도 북핵 제재 못한다...신냉전 구도 강해지며 기능 상실.” 『한겨레』 (6월 26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7429.html> (2023/09/23 검색).
- 안승섭. 2019. “中 극동지역 투자 확대에 러시아 ‘움찔’...반감 증폭.” 『연합뉴스』 (3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22700074> (2023/06/29 검색).
- 왕리. 2015. “중국 외교의 “비동맹-동반자”이념.” 『성균차이나브리프』 3(2), 142-148.
- 이동률. 2023.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②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선택.” 『Global NK 논평』 2023-02, 1-5.
- 이보람. 2023. “시진핑 “中, 패권 추구 안 한다”...‘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제안.” 『중앙일보』 (3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551#home> (2023/06/20 검색).
- 이주연. 2021.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전망: 전망 이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5(2), 287-324.
- 이한나. 2023.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6(24), 1-10.
- 이홍섭. 2018.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 『중소연구』 42(1), 171-200.
- 이훈성. 2023. “북·중·러 ‘신냉전’ 동상이몽.” 『한국일보』 (4월 6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0515110003563> (2023/06/23 검색).
- 임을출. 2022. “북·중·러 협력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65-81.
- 장세호. 2023. “[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Global NK 논평』 2023-03, 1-5.
- 장시영, 남궁영. 2023. “도전받는 미국의 해계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 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41(1), 1-53.
- 정은이, 전병근, 신중호, 이무철, 이재영, 이기현, 최필수. 2022.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영관.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SNU AC 다양성+Asia』 17, 1-5.
- 조영빈. 2023. “중국, 163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되찾았다.” 『한국일보』 (5월 15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519110003711> (2023/06/29 검색).
- 조용성. 2023. “나진항 막힌 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사용권 취득.” 『뉴스핌』 (5월 16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600030> (2023/06/29 검색).
- 조준형. 2022. “집권 3기 시진핑, 대미 정면충돌 피하며 ‘장기전’ 대비.” 『연합뉴스』 (11월 15일). <http://yna.co.kr/view/AKR20221115081400083> (2024/02/14 검색).
- 조형진, 송승석.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중·러관계.” 『국제지역연구』 26(4), 87-106.
- 중국망. 2022. “리잔수, 제7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참석 및 축하.” 『중국망신문중심』 (9월 10일). http://korean.china.org.cn/2022-09/10/content_78414240.html (2023/06/20 검색).
- 차두현. 2022. “최근 북한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관계: ‘북방 3각관계’의 부활?.” 『이슈브리프』 2022(32), 1-13.
- 최수호. 2023. “[르포] ‘중러 밀착’ 상징된 블라디보스토크항, 중국산 화물 처리로 분주.” 『연합뉴스』 (6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098600096> (2023/09/29 검색).
- 최재현. 2022.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의 변화: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6), 1261-1276.
- 테사 윙. 2022.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중국과 ‘신냉전 없을 것.’” 『BBC News』 (11월 15일). <https://www.bbc.com/korean/news-63632939> (2023/09/23 검색).
- 한은영. 2017. “러시아의 동진정책에서의 중국 변수와 지정지정학적 전망.”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2017(15), 1-18.
- 한종구. 2022. “[우크라 침공] 중국, 우크라에 10억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연합뉴스』 (3월 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041086?sid=104> (2023/06/20 검색).
-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2012.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현승수. 2023.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Online Series* 23(14), 1-6.
- CSF. 2023. “中-중앙아시아 5개국 밀착...러시아의 세력 범위 견제하나?” 『이슈&트렌드』 (5월 25일). URL (2023/09/23 검색).
- K-stat. 2023. “IMF 세계통계.”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ChinaStats.screen> (2024/01/01 검색).
- “[지구촌 돋보기] 신냉전과 동북아.” 『KBS 뉴스』 2023/06/2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5633&ref=A> (2023/09/23 검색).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01/01.

영문 자료

- Bueno de Mesquita, Ethan. 2016. “Coordination Problems.” in *Political Economy for Public Policy*, edited by Ethan Bueno de Mesquita, 150-17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plow, Theodore. 1956.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4), 489-493.
- Crawford, Vincent Paul, Uri Gneezy & Yuval Rottenstreich. 2008. “The Power of Focal Points Is Limited: Even Minute Payoff Asymmetry May Yield Large Coordination Fail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98(4), 1143-1158.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 ESRI. 2011. *ArcGIS Desktop: Release 10*. Redlands, CA: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 Eurasianet. 2023. “China-Central Asia summit: Lots of Rhetoric, Little Substance.” 19 May 2023, <https://eurasianet.org/china-central-asia-summit-lots-of-rhetoric-little-substance> (accessed 20 June 2023).
- Greif, Avner. 2006.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nemann, Frank, Rosemarie Nagel & Peter Ockenfels. 2009. “Measuring Strategic Uncertainty in Coordination Gam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1), 181-221.

- Jervis, Robert. 1998.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o, Ning. 2022.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22." 13 October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0/t20221013_10782991.html (accessed 20 June 2023).
- Mckelvey, Richard D. 1976. "Intransitivities in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and Some Implications for Agenda Control." *Journal of Economic Theory* 12(3), 472-482.
- Missile Defense Project. 2022. "Missiles of North Korea." 22 November 2022,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accessed 20 June 2023).
- Schelling, Thomas C.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psle, Kenneth A. 2008.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edited by Sarah A. Binder, R. A. W. Rhodes and Bert A. Rockman, 23-38. Oxford: Oxford Academic.
- The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 United Nations. 2022a. "Resolution 2623." 27 February 2022,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22/271/32/PDF/N2227132.pdf?OpenElement> (accessed 20 June 2023).
- _____. 2022b. "Aggression against Ukrain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 March 202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59039> (accessed 23 June 2023).
- _____. 2022c.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24 March 202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65954?ln=en> (accessed 23 June 2023).
- _____. 2022d. "Suspension of the rights of member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Human Rights Council." 7 April 202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67778?ln=en> (accessed 23 June 2023).
- _____. 2022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2 October 2022, <https://www.un.org/press/en/2022/20221012-territorial-integrity-of-ukraine> (accessed 23 June 2023).

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0400?ln=en (accessed 23 June 2023).

_____. 2022f. “With 143 Votes in Favour, 5 Against,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ondemning Russian Federation’s Annexation of Four Eastern Ukraine Regions.” 12 October 2022, <http://press.un.org/en/2022/ga12458.doc.htm> (accessed 20 June 2023).

_____. 2022g. “Furtherance of remedy and reparation for aggression against Ukraine.” 14 November 202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4052?ln=en> (accessed 23 June 2023).

_____. 2023.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lying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23 February 202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03921?ln=en> (accessed 23 June 2023).

Van Huyck, John B., Raymond C. Battalio & Richard O. Beil. 1991. “Strategic Uncertainty, Equilibrium Selection, and Coordination Failure in Average Opinion Ga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3), 885-910.

중문 자료

赵安琪. 2023. “在丝路起点，中国与中亚将开启下一个“黄金30年”。”『中国青年报』(5월 18일). http://news.cyol.com/gb/articles/2023-05/18/content_OVAxMGSWy0.html (2023/06/20 검색).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 “王毅阐述中方对当前乌克兰问题的五点立场.”(2월 26일). https://www.fmprc.gov.cn/wjzb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2023/05/20 검색).

_____. 2023. “关于政治解决乌克兰危机的中国立场.”(2월 24일). https://www.fmprc.gov.cn/zyxw/202302/t20230224_11030707.shtml (2023/06/20 검색).

Abstract

**Formation and Prospects of the Coalition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
Is It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New Cold War?
Is It a Temporary Adhesion?**

Jeongeun Ahn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alition amidst complex global crises lik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S-Russia crisi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ing coordination games and problems as analytical tools. In the ‘New Cold War’ context, they identify a focal point, form coalitions, and coordinate strategies based on reactive anti-US policies and confrontations with coalitions involving ROK, the US, and Japan. However,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New Cold War’ and external factors leading to divergent focal points resulted in strategic uncertainty. Forming a stable grand coalition as an institution is challenging, and there is a risk of abandonment when forming a specific coalition based on interests. Moreover, the emergence of spoilers within the coalition breeds apprehension among other nations, rendering the coalition unsustainable. Consequently, the sustainability of the North Korea-China-Russia coalition diminishes, fostering ongoing non-cooperative behavior amidst a temporary phase of adhesion.

Key Words: New Cold War, North Korea-China-Russia, Coordination Game, Strategic Uncertainty, Focal Points, Spoilers

□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8일